

## 6 '청년은 지금' 특별기획 - ⑥청년세대의 젠더 이슈

90-00년대 생들이 가지는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우위를 점했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리신문은 총 7회에 걸친 연재 기획 '청년은 지금'을 준비했다. '청년은 지금' 기획은 대부분의 대학생에 해당하는 90-00년대 생들과 관련이 있는 건강,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하는 코너다. 청년들이 알면 좋을 지식부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년들의 움직임까지 관련된 현상 전반을 전하고자 한다.

- ① 청년의 정신건강
- ② 청년정치
- ③ 청년세대의 불평등
- ④ 청년 주거 문제
- ⑤ 청년 일자리 문제
- ⑥ 청년세대의 젠더 이슈



경청의 자세가 전제될 때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타자화 시키기보다, 유사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고통을 발견하고 냉소적 시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 청년세대의 젠더 공정성 인식



정 고 운  
교수 · 사회학

### 온라인 공간의 젠더 담론과 전통적 젠더규범에 대한 반감

2015년 온라인공간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폐미니즘의 부상한 이후, 2016년 강남역 사건, 그리고 2018년 미투운동을 펼두로 청년들 사이에서 폐미니즘은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이 분화되면서, 논쟁적인 사람들은 대두되었다. 미디어 담론은 온라인 공간 내 젠더의식을 갈등론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연구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여성혐오, 남성혐오 담론이 단지 남녀 간의 극단적 대립

이라는 미시적인 진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마경희 외 2020). 일례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여성적, 남성적 역할규범의 실천에 있어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역할규범의 혼란을 경험한다. 여성적 역할 규범으로서 화장 등 외모관련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52.4%가 규

### 생존주의 세대의 출현

한편, 가부장적질서와 남성우월주의에 편재되어 있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변화는 '성별'이라는 요소만이 아닌 개인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경험은 성별 이외에 인종, 계급, 세슈얼리티 등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는 교차성 이론에 따르면 (Choo and Ferree 2010), 90년대생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젠더, 세대라는 축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개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달라진

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의 가족 배경, 학력, 기술, 노동시장 내 위치 등 개인적 자원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태어난 구조적 조건, 저성장시대의 도래, 폐미니즘의 부상, 온라인 공간의 확산에 따라 그들의 경험 이 이질성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범주 또한 유연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정희진 2011; 엄기호 2014 재인용).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관한 연구들은 젊은 세대가 인턴, 임시직, 비정규직(계약, 파견) 등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을 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혜경 이순미 2011; 신경아 2014). 현재 90년대생들에 대한 대중서들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화된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가로截하는 하나의 개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함을 보여준다(임홍택 2019). 저성장

고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각자도생의 전략을 세운다(김홍중 2015). 한편, 이러한 불안감은 부모의 계층적 배경과 상관없이 작동하는데 부모가 중산층인 20대는 중산층적 생활방식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노동계급에 속한 청년들은 극빈층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공정이 젠더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사로 등장한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 떠오른 청년 공정성 담론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다. 임홍택은 90년대생들은 유일하게 공정한 채용시스템으로 여겨지는 공무원 시험 열풍, 스펙 경쟁,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등에서 표상되었듯, 청년세대의 불공정 담론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또는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

다른 가치(차별 해소)보다 상위에 있어 초월성을 가지는 핵심 가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정이 젠더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사로 등장한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 떠오른 청년 공정성 담론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다. 임홍택은 90년대생들은 유일하게 공정한 채용시스템으로 여겨지는 공무원 시험 열풍, 스펙 경쟁,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등에서 표상되었듯, 청년세대의 불공정 담론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또는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

### 티집단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의 힘

이렇게 청년세대 내 등장한 "젠더 불공정" 담론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저성장시대 경제적 안위보장이 어렵고, 민주화 등의 세대 내 / 세대 간 연대를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여하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의견 표출이 자유로워진 시대에, '개인'적 권리의식과 공정 담론의 부상은 필연적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말하는 주체로 공적 공간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나의 말이 들리는 것은 아니며, 누구의 말은 삭제되거나 공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더욱 의미를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듣는지이다.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타 집단에 대한 공감으로 나아가는지를 성찰하는 시민적 덕성인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더욱 의미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젠더 공정성 담론의 부상 또한 이러한 공정 담론이 전사회적으로 전면화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능력주의라는 신화를 외로이 하여 젠더 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 보다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 본 기고문의 일부는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2021)의 7장에서 일부 발췌 및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

\* 대학주보 온라인판에 필자가 명시한 참고문헌 목록이 있습니다.